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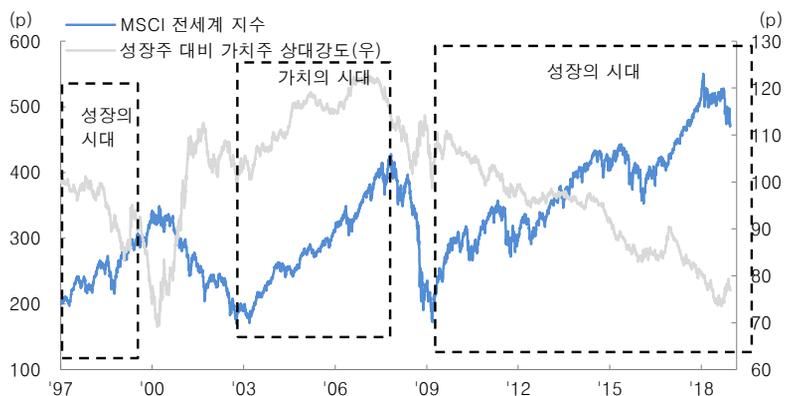
Quant

Quant Strategist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기다림이 필요한 가치주

-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추세는 가치와 성장 스타일이 번갈아 가면서 주도해왔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주식시장 강세장의 주역은 FANG으로 대표되는 성장주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FANG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스타일에도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최근 가치 스타일은 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가치 스타일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하려면 가치 성향의 핵심 섹터인 금융, 에너지, 소재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으로 강세 전환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과 에너지, 소재 섹터의 이익 증가를 전망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금융은 장단기 금리차, 에너지는 유가 변화, 소재는 산업용 금속 가격 변화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세가지 변수 모두 상승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가치 스타일의 강세 전환 여부는 신흥국 증시에도 중요하다. 가치 스타일이 주도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상승장에서 신흥국 또한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가치 스타일이 강세일 때 신흥국 증시가 좋은 이유는 신흥국에서 가치 성향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부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의 반등 또한 기술적 반등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가치와 성장 스타일이 번갈아 가면서 주도



자료: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 조승빈)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